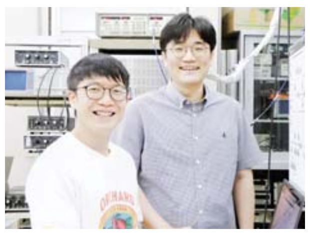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4541호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산업]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양자 기술 핵심
초고감도 검출기 개발
08

[라이프]
현대百
라이프스타일 제안
'신개념 쇼핑'
L1

골퍼들의 낙원 제주… 한라산 바라보며 '나이스 샷'

우리들CC 한라산전경.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지난 8월 31일, 제주관광협회가 발표한 '2020 제주도 골프장 내장객 현황표'에 따르면 여름성수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약 69만명의 골퍼들이 제주에서 골프라운딩을 가졌고, 도외 방문자는 36만명으로 조사되었다. 방문객이 전년대비 월평균 27.4% 이상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국내 여행·항공·호텔업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골프장업계는 실외운동을 하는 장소라 안전하다는 점이 부각돼 코로나 사태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다.

10월 가을을 맞아 당일치기, 1박2일, 2박3일 골프여행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제주도 골프는 경쟁이 더 치열해 지고있다. 제주도 골프전문여행사 슬기로운골프생활 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더클래식CC와 서귀포시 산록남로 우리들CC를 둘러보고 코로나19 대비 방역 및 도내외 입장객 관리, 코스상태 등을 확인해봤다.

더클래식CC

숲 속 다이나믹 라운딩 '더클래식CC'

제주국제공항에서 슬기로운골프생활이 직접운영하는 미니버스를 타면 더클래식CC까지 대략 45분 걸린다. 김포공항에서 오전비행기를 타고와서 출출하다면 제주시 은희네 해장국을 추천한다. 얼큰한 육수에 고기가 듬뿍인 제주해장국은 라운딩하기 전 그만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골프의 성지라 부를 만 하다. 더클래식CC는 에코랜드CC와 제피로스CC를 지나 인근에 부영CC 등이 있고,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을 지나 우측에 위치한다.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더클래식 골프클럽 전체규모는 18홀(총 72파·7346야드)이고, 그린과 페어웨이 잔디는 벤트글라스다. 수풀림같은 포레스트와 다이나믹한 밸리코스는 적절한 난이도와 그린스피드를 가지고 있어 보기플레이어 정도면 무난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밸리코스는 수풀과 헤저드를 넘기는 홀들이 많아 세컨샷시 주의를 요한다. 그린은 오히려 한라산브레이크(착시)가 있어 재미 있다. 조심해야 할 건, 까마귀가 있어서 칼러볼과 소지품을 잘챙겨야 한다는 것. 입장시 발열체크, QR코드 등록은 기본이다.

우리들CC

자연 속 수준 높은 코스 '우리들CC'

제주 서귀포시 산록남로(한라산 남쪽자락)에 위치한 우리들CC는 대중제 18홀코스로, 벤트글라스 그린과 켄터키블루 글라스 페어웨이를 가지고 있다. 제주시에서 한시간여 거리이고 주변 스프링데일CC, 스카이힐CC, 라온CC, 해비치CC, 테디밸리CC 등이 30분이내 거리다.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총전장 7211야드의 북코스와 남코스는 '싱글들의 무덤'으로 불릴만큼 난이도가 제법 높다.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제주도 골프장이며 서귀포 바다와 한라산을 배경으로 수준높은 샷을 구사할 수 있다. 티샷을 끊어 쳐야하는 홀이 3홀 이상되고, 한라산의 영향을 받는 그린난이도 또한 보기플레이어 이상 골퍼들에겐 도전정신을 불러 일으킬만하다.

클럽하우스 내부도 은은한 목재와 레드 가죽 소파등은 밝고 화려하다. 우리들CC 또한 입장시 발열체크 및 QR 코드 등록은 필수다.

숙소로 돌아가는 미니버스엔 라운딩의 여운이 가득했고 한라산소주와 회로 제주도 저녁은 저물어갔다.

슬기로운골프생활 김민회 본부장은 "제주도 도민은 더클래식CC나 우리들CC를 선호하지 않는다. 스코어가 보통 5~8개 늘어서다. 제주도민은 그린피가 보통 2만원 정도 싸다. 육지에서 저희 상품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주도민 가격으로 라운딩 하는걸로 생각하면 된다"고 미니버스에서 말했다.

우리들CC 정영철 영업본부이사는 "한라산 남쪽에 우리들CC가 위치해 북서풍을 막는다. 바람과 눈이 적어 12~2월 겨울에 라운딩이 가능하다. 올여름 태풍, 습한기후 등으로 그린과 잔디가 상했다. 서귀포 인근 골프장 중 가장 난이도가 높고 페어웨이 관리 등이 잘된 골프장"이라고 말했다.

샤인빌CC

슬기로운 골프생활 위한 '여행 팁'

슬기로운골프생활에서는 제주 3색 골프상품을 10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간 한정 판매한다. 항공·호텔·라운딩·미니버스(혹은 렌터카)가 포함된 상품이며 상품가격은 1박 36홀 26만9000원, 2박 54홀 37만9000원, 3박 72홀 46만9000원, 4박 90홀 57만9000원이다.

항공패턴은 오전 7~8시 출발해 저녁 7시~8시 돌아오는 일정이다. 호텔은 코업시티하버뷰, 스타즈제주, 심스호텔, 오션스위츠호텔, 하워드존슨호텔, 롯데시티호텔 중 가격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다. 라운딩 가능한 골프장은 더클래식CC, 샤인빌CC 그리고 우리들CC 또는 타미우스CC이다. 직영미니버스 또는 렌터카(2박 최장 59시간)를 선택할 수 있고, 라운딩 후 중·석식 안내가 가능하다. /제주=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뉴질랜드 관광청

커피향 가득… '커피 수도'로 떠오른 웰링턴

수준 높고 특색 있는 로스터리 곳곳에

뉴질랜드 관광청이 10월 1일 세계 커피의 날을 맞아 흥미로운 소식을 4일 밝혔다. 플랫화이트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이 뉴질랜드는물론, 전 세계 커피 수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웰링턴은 뉴질랜드 전역에 커피 빈을 제공하는 40여 커피 로스터리(커피빈을 볶고 가공하는 곳)가 위치해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갖춘 카페와 레스토랑 850여 개가 웰링턴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뉴욕의 1인당 커피 제공량을 넘어선 수치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수준 높은 커피를 즐기는 것을 넘어 커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도 관심이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사람들의 54%가 커피가 미치는 윤리적, 환경적 영향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공정무역 커피, 환경을 위한 플라스틱 프리 생분해성 컵 개발, 킵컵스, 어게인어게인과 같은 다회용 컵 사용 서비스 등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커먼 그라운드 에스프레소 /뉴질랜드관광청

뉴질랜드의 수준 높고 특색 있는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커피 농장과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생산된 커피를 제공하는 피플스 커피 ▲맛 좋은 커피에 부여하는 Q-그레이드를 인증받은 케빈 머레이가 수석 로스터로 있는 라페어 등이 있다. /이민희 기자

XGOLF

'信멤버스' 300구좌 돌파 기념 이벤트

그린피 지원·리무진 무료 이용 제공

골프 부킹 서비스 XGOLF(대표 조성준)가 '신(信)멤버스'의 기업 회원사 300구좌 돌파를 기념해 오는 10월 말까지 1000만원 상당의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멤버스는 엑스골프(XGOLF)가 17년 경영 노하우와 재무 안정성을 기반으로 선보인 기업 전용 골프 부킹 서비스로, 전담 컨시어지를 통한 골프 부킹부터 정산, 용품 구입까지 전 과정 무기명·비대면화로 이뤄진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4월 신멤버스 론칭 이래 기업 회원사 300구좌가 가입 완료한 기념으로 마련한 행사이며,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가입만 해도 선물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중 신멤버스 가입 및 재예치 완료 회원사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캐디톡 미니미)를 증정한다.

또, 기간내 가입한 회사를 추첨해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물 규모는 총 1000만원 상당으로, 주말 그린피 100만원권(1명)과 주중 그린피 50만원권(1명), 노블클라세 솔라티 S11 리무진 무료 이용권(2명), 이너뷰티 제품 30포(2명), 메디컬 스파 브랜드 이용권(10명)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됐다.

한편, 신멤버스는 기업 회원에 4인 무기명 예약 서비스 무제한 제공 및 전국 350여 개 골프장(수도권 명문/인기 골프장 중심)의 주중 및 주말 골든타임 부킹 서비스로, 최근 기업 회원사 300구좌를 확보한 바 있다. /이민희 기자

언택트 시대 맞춤 여행법, '차박캠핑' 떠나자

'나의 첫 차박캠핑 이야기' 에세이 출간

코로나19로 언택트가 일상인 시대가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 곳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마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 '집콕'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행에 대한 욕구가 커져만 가면서 사람들은 낯선 이와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차박캠핑은 비 오는 날의 우산처럼 반갑게 등장했다.

차박캠핑이란 차에서 놀고, 먹고, 자는 캠핑을 뜻한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준비 없이 차만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다가 돌아올 수 있기에 가족끼리, 연인끼리, 혹은 혼자서 많은 사람들이 차박캠핑을 즐긴다. 저자는 바로 이 차박캠핑의 시간과 즐거움을 들려주고자 한다.

이 책은 2000만 누적 방문객이 찾아온 네이버 캠핑 분야 1위, 차박캠핑 대표 블로그 '피터팬 캠핑'의 블로거이자 그린캠핑 캠페인의 선구자 '피터팬'의 10년이 넘는 캠핑 이야기와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이민희 기자